

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

시인을 발견하는 즐거움

글_장동석 기자



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
신경림 지음 | 우리교육 | 352쪽 | 값 8,000원

시를 쓰던,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흥내만 내던 때가 있었다. “신을 벗으면 /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/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” 던 한하운(《전라도 길》)의 아픔이 내 아픔인 양 싶었고, “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/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” 하였던 유치환(《행복》)의 행복이 내 행복인 양 싶었던 때, “그곳이 차마 꿈엔 들 잊힐 리야” (정지용 《향수》)를 매일 밤 되뇌며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쯤 존재하는 것일까, 하는 얼치기 시상에 젖어보던 때 일이다. 시, 그러나 이제는 헛헛하던 청춘의 로망일 뿐….

그렇게 시를 잊어가던 즈음 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로 시를 다시 만났다. 한 구절 한 구절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것 같던, 그러나 일상에 치져 제목조차 희미해졌던 정지용의 《향수》를 읽고 또 읽었다. 이메일이 세상 모든 편지를 대신하는 시대이지만, 지금도 우체국 앞을 지날 때면 유치환의 《행복》을 다시금 되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 때문이다.

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마다, 여전히 시는 조심스럽다. “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시집을 살펴보면,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가 많이 읽히지만 올바르게 읽히는 것 같지는 않다”는 신경림 선생의 작은 경종이 “시가 많이 쓰는 쓰이지만 올바르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”는 추상같은 호령처럼 내게는 들리기 때문이다. 어찌하랴, 궁색한 변명으로 ‘뱀벌이의 고단함’ 때문에 시 따위는 읽었다고 할 수밖에.

그러나 어찌 ‘시 따위’라는 표현으로 마음에서 시를 내칠 수 있던 말인가. 그래서 오늘도 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가 곁에 있음이 마음 든든하다. 시인은 책에서 “(시가) 올바르게 읽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묻는다면 꼭 집어 대답할 말은 없다”면서도 “같은 시일지라도 백 사람이 백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조금은 무책임한 말도 은근히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 터”라고 에둘러 말한다. 그래, 시란 백이면 백 다른 것이어서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시의 스테레오 타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.

이 책은 시인을 발견하는 묘한 재미가 있다. 첫 조우에서는 정지용과 유치환만 보이던 것이, 두 번째는 박봉우와 임화를 만났던 기억이 생생하다. 또 새로운 시인을 만나기를 몇 번이던가,

오늘은 다시금 신동엽을 만났다. 신동엽을 모를 리 없건만 유독 신동엽의 시들이 마음속 한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. “껍데기는 가라”던 쇠구를 자신의 정치 캐치플레이어로 사용했던 그 정치인은 아직도 건재한지 알 턱이 없으나, 《껍데기는 가라》를 까맣게 타버린 가슴으로 외치던 신동엽 시인의 ‘결기’는 여전히 세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.

“껍데기는 가라. /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/ 껍데기는 가라. // 껍데기는 가라. / 東學年 곱나루의, 그 아우성만 살고 / 껍데기는 가라. // 그리하여, 다시 / 껍데기는 가라. / 이곳에선,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/ 아사달 아사녀가 / 중립의 초레청 앞에 서서 / 부끄럼 없이 빛내며 / 맞질할지니 // 껍데기는 가라. / 한라에서 백두까지 / 향그러운 흉가슴만 남고 / 그,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.”(《껍데기는 가라》 전문)

신경림 시인은 이 시를 일러 “신동엽 시인이 메시지만 강하고 그 밖의 모든 시의 방법에는 등한한 시인이라는 일부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시”라고 평한다. “행가름과 점표, 마침표를 이용한 호흡의 완급, 리듬의 강약의 방법이 절묘”하며 “짧은 행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이 담겨져 있”기 때문이다. 죽산 조봉암이 단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것이 이 시가 쓰여지기 불과 7, 8년 전인 것을 생각하면, “그,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”던 반전의 외침과 “중립의 초레청 앞에 서서” 평화를 이야기하지는 절규는 실로 무서운 결의임에 틀림없다.

시는 그 자체로 좋을 뿐 읽고 쓰는 데 무슨 다른 연유가 있겠는가만, “기왕에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를 찾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겠는가”라는 신경림 시인의 말에는 더 풍성하게 시를 읽는 즐거움, 즉 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가 주는 즐거움이 묻어난다. **한겨레**

시는 그 자체로 좋을 뿐 읽고 쓰는 데 무슨 다른 연유가 있겠는가만, “기왕에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를 찾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겠는가”라는 신경림 시인의 말에는 더 풍성하게 시를 읽는 즐거움, 즉 《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》가 주는 즐거움이 묻어난다. **한겨레**